

애독자세상

본 코너는 <월간당뇨>를 보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건의사항을 모아 답변과 방향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월간당뇨>를 보고 당뇨관리에 관한 궁금한 점, 그 달 내용에 관해 의문 나는 점, 당뇨관리를 하면서 궁금한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인슐린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대해 알았으면 합니다.

인슐린은 그 작용시간에 따라 속효성, 중간형, 지속형의 3종류로 구분되며 성분도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형의 엔피에취 인슐린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인슐린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제품의 순도가 높을수록 사용량이 적고 부작용도 작습니다. 인슐린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작용시간인데 속효성 인슐린을 사용하면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루 3회 이상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 속효성 인슐린은 혈당을 급격하고 철저히 조절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지만 불편한 점이 많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엔피에취 인슐린의 작용시간은 하루종일 지속되지만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므로 오전중에는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작고 오후쯤부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 오후에 심한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거르게 되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나 돼지, 또는 소의 췌장 속에 있는 인슐린을 정제하여 사용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였지만 이러한 것들은 불순물이 섞이기 쉽고 각종 부작용들도 많이 보고되어 불편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력의 발달로 세균이나 효모균을 사용해서 사람 인슐린과 똑같은 인슐린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슐린에 대한 다른 자세한 내용은 기획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것이 식사요법입니다. 식사요법에 관한 쉬운 이해 방법을 게재해 주었으면 합니다.

식사요법은 당뇨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법 중에 하나이지요. <월간당뇨>에서는 식사요법을 포함한 여러 당뇨관리법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식단을 짜는 법과 식품교환표를 보는 법 등 여러 식사요법 관리를 다룬 적도 많습니다. 앞으로 식사요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충분히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환자의 안구검사, 심장검사 등 신체검사 검진 주기를 책자에 게시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정기검진은 약 6개월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면에서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그래도 당뇨병환자는 1년에 한 번 짬은 꼭 정기검진과 합병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질병별 검사 주기와 꼭 해야 하는 검사들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실어주셔서 많은 받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케톤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실어주세요. 케톤증은 2007년 3월호에 실린 적이 있으므로 3월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케톤성 혼수와 케톤산증을 자세히 다루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호가 없으시면 협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